

월/요/광/장

김필식



부재(不在)로써 존재(存在)를 증명하는 것들이 있다. 보이지 않아야 보이는 것들, 늘 있던 자리에 있을 때는 소중함을 모르다가 그 자리에서 사라지고 나면 부재가 주는 공허함으로 인해 그 가치를 절박하게 깨닫게 되는 것들 말이다.

스승의 날 괜한 오해 받을까 두려워 차라리 휴교하겠다는 학교가 여전히 존재하고, 촛지 근절을 위해 불시에 선생님을 가방 속까지 검문했다는 뉴스를 접할 때면, 많은 사람들이 행여 누(누)가 뿔세라 스승님 찾아뵙기도 주저할 것이다.

모두 행복해지는 '가정의 달'로

가정의 달, 5월이다. 어린이와 부모님, 그리고 스승님, 너무나 소중한 이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계절이지만, 요즘 우리 사회에서는 감사드리는 사람이거나 받는 사람 모두 마음 한 구석이 부겨워진다.

이 분명하다. 사람과 사람 사이가 멀어지고, 가족 안에서도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허술해지는 느낌이랄까. 멀리 있는 행운과 성공을 잡으려다 가까이 있던 행복을 날려버린 것처럼, 뭔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듯한 낭패감을 지울 수 없다.

이 땅의 많은 자식들이 부모에게 받은 사랑의 절반도 돌려드리지 못하면서 살기 때문에, 버려진 남의 부모를 긍휼히 여겨 도와줄 엄두를 내지 못한다. "너나 잘하라"는 소리가 내면에서 들려오기 때문이다.

학생들이 1년간의 활동 소감을 묶어 자그마한 소식지를 냈다. 참여 후기를 읽어보니 열이면 열 모두 "도움 드려라 갔다가 큰 깨달음을 얻고 돌아왔다"며 즐거워했다.

완연한 봄이다. 그러나 경제 위기 속에서 많은 가정이 지금 겨울의 문턱에 서 있다. 앞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맨몸으로 한파를 견뎌야 할 것인가.

하어, 나도 "너나 잘하라"는 소리 들을 까봐 위축되는 마음을 떨치고 자그마한 실천을 시작해보기로 결심했다. 낮은 목소리, 작은 노래들이 모여 강물처럼 흐르기를 기대하며 즐겁게 5월을 시작한다.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J프로젝트 외자유치 무산 정부책임 크다

전남 서남해안관광 레저도시(J프로젝트) 송천지구에 대한 농림수산물부의 '알박기'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J프로젝트 송천지구에 45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협약을 맺은 대만본인이 투자를 포기한 것이다.

러스그룹 미국 본사에 전해지면서 송천지구 개발사업을 진행할 특수목적법인(SPC) 설립도 잠정 보류된 상태다. 이는 당초 농식품부가 판권을 끌고 나오면서부터 제기됐던 시나리오였다.

자살 바이러스 확산 방지하지 말라

가정의 달인 5월 광주·전남지역에서 자살 사건이 잇달아 총격을 주고 있다. 지난 1일 새벽 광주에서 한 고교생이 교사로부터 매를 맞고 귀가한 뒤 목을 매 자살했다.

여행이 피겨져 된 것이다. 우리나라는 불행히도 자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위다. 따라서 요즘 들불처럼 번지고 있는 자살 바이러스를 다잡지 못한다면 '자살 공화국'이란 수치스러운 꼬리표를 떼어 버릴 길이 없다.

기고

김명한



올해는 일찍 찾아온 더위로 전국 산야에는 예년에 비해 오월의 푸름이 한층 더해 가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오월을 반기는 많은 축제가 펼쳐지고 있지만 광주의 오월은 잊으려야 잊을 수 없는 아픔을 푸름마저 원망스럽다.

하지만, 항쟁과정에서 154명이 사망하고, 70명이 행방불명되었으며, 부상자(3천208명), 기타희생자(1천628명)를 포함하여 모두 5천60명이 피해를 입었다.

기고

이정남



지난 4월 6일 국제대학스포츠연맹 실사단이 광주를 방문함에 따라 이제 광주의 2015 하계 유니버시아드 U대회 유치를 위한 대장정은 반환점을 돌았다.

입국 절차와 교통접근성, 문화유니버시아드를 통한 유산전략 등을 강조해 문화중심도시 광주의 국제 스포츠대회 개최 능력을 과시함으로써 실사단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 주었다.

다시 새겨보는 5·18민주화운동

운동은 비록 10월 동안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이 운동은 갑자기 일어난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다. 임진왜란과 동학혁명, 3·1만세운동과 4·19혁명 등 국가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마다 국민이 일어나 목숨을 바치면서 나라를 지킨 자랑스런 역사와 함께 그 맥을 같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체를 형성하였다는 것이다. 특히 항쟁기간 중 시민들은 더러워진 도로를 청소하고, 부족한 식량을 서로 나누고, 부상자들을 위해 스스로 헌혈을 하면서 치안 부재의 광주를 자랑스럽게 지켰다.

2015 하계 U대회 반드시 광주여야 한다

초청한 것에 대해 '대통령을 비롯한 사회 각계, 각층에서 광주를 지지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고 말하는 등 지원 의지에 공감했다.

속의 1등 광주로 도약하는 대전기를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2002년 월드컵 및 2005년 피스컵 코리아 축구대회의 성공적 개최에 이어 국제도시로서 광주의 이미지를 전 세계적으로 부각시켜 해외 투자 유치 및 지역기업 해외진출, 지역 제품 수출증대를 도모하고 해외관광객 유치 등 지역 관광진흥 및 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

낙농육우산업 근본적 희생 대책 절실

젖소는 말 그대로 젖을 짜는 소다. 젖은 당연히 암소에게서만 나온다. 일반 도시인들은 젖소는 암소만 떠올릴 뿐, 수소에 대한 느낌은 아예 없을 걸로 안다.

지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낙농가들의 미래인 갖 태어난 송아지를 보양 증상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니 낙농가들은 슬프기까지 한 심정이다.

세군딩어리 배개, 직사광선에 말리세요

우리가 자는 배개는 알고 보면 세군딩어리라고 한다. 특히 잠을 자는 도중에 자신도 모르게 흘리는 침이 세군의 증식을 돕는다.

는 일을 병행하면 금상첨화다. 또한, 직사광선에 말리는 방법이다. 배개를 직사광선에 말릴 때는 한쪽만 쬐지 말고 식빵 굽듯이 번갈아 잘 말려주는 것이 중요하다.

無等鼓

대한민국은 '산악강국'이다. 국토의 70%가 산지이며, 한 달에 한 번 이상 산에 오르는 등산인구가 1천500만명에 달한다.

이래 수많은 등반가들이 도전에 나섰다. 하지만 성공한 사람은 지금까지 15명뿐이다. 한국인으로는 엄홍길씨가 지난 2000년 세계에서 8번째로, 박영석은 2001년(9번째), 한양은 2003년(11번째) 완주를 이뤄냈다.

8,000m 레이스



Table with 2 columns: 光州日報 and The Kwangju Ilbo.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subscription rates, and website details.